

유통가, 끝없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광주신세계, 전남도와 손잡고 우수 농산물 판매하는 안테나숍 오픈
롯데마트 '물가 안정 채소 기획전'서 가격 급등 대파·감자 등 할인 판매

올 들어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대형 유통매장이 신선 대파와 화순 딸기 등을 내세운 신선식품 할인전을 벌인다.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롯데마트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물가 안정 채소 기획전'을 열고 대파와 감자 등 농산물을 할인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금(金)파'라 불릴 정도로 가격이 크게 뛰신안 임자도 농산물우수관리(GAP) 대파는 1단 4980원에 내놓는다.

최근 대파 1단(1kg) 가격은 7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 행사 기간 동안 행사카드로 결제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동절기 대파 주요 산지인 전남에 폭설과 냉해가 발생해 공급량이 크게 줄며 전년 대비 가격이 5배 이상 올랐다"며 "이번에는 산지와 선제적 물량 기획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할인전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국산 감자(900g)는 농림축산식품

부 주관의 '대한민국 농활(농산물 할인) 갑시다' 할인을 적용해 3990원에 판매한다. 이번 감자는 공급 불안정을 대비해 미리 비축해둔 물량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 김제, 부안 등에서 수확한 감자 20t을 온도와 습도, 산도 등을 조절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CA 저장 기술을 활용해 저장했다. CA저장이란 산소와 질소 등의 농도를 조정해 원물 상태 그대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점단 기술을 말한다.

이마트는 오는 5월까지 화순에서 새벽에 수확한 딸기를 공수해 당일 오후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지난 11월부터 오는 5월까지 대표적인 초신선 상품인 '새벽에 수확한 딸기' 60만팩을 판매할 방침이다. 이번 상품은 새벽에서 농가에서 수확한 후 당일 정오까지 매장에 입고돼 판매된다.

이마트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에 딸기가 물러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 과정을 기존 이틀에서 반나절로 단축해 신선도를 높은 딸기를 마련했다고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관에 전남도 6차산업 농식품 홍보관 '안테나숍'이 지난 16일 문을 열었다. <전남도 제공>

설명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및 경기·충청권 점포는 논산, 전주·전라권은 화순과 완주, 경남권은 산청과 고령에

서 물량을 공수해 딸기 운반 시간을 줄였다.

이마트는 이달 중순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새벽에 수확한 딸기' 물량을 지난

해보다 50% 늘렸다.

가격은 이마트가 판매하는 다른 특등급 딸기보다 20% 저렴한 수준으로, 포장을 간소화해 인건비를 절감한 결과라고 이마트는 전했다.

㈜광주신세계와 전남도는 지역 우수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안테나숍 4호점'을 지난 16일 지하 1층 식품관에 문 열었다.

안테나숍은 우수 6차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보 등 소득 창출을 위해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말한다.

광주신세계 매장은 이번이 네 번째로, '나주 산포 농협 하나로마트'와 '순천만정원 마을기업 판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 2개소와 '남도장터 6차산업 기획관' 온라인숍 1개소 등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전남 311개소의 6차산업 인증업체 제품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37개 업체 300개 우수 농식품을 전시·판매, 광주권 등 도시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광주·전남의 우수 6차산업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광주신세계와 전남도는 앞으로 공동 판촉을 펼치며 지역 농산물 소비지출을 전남권뿐 아니라 광주권 시민에게 확대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롯데백화점·아울렛 봄철 골프 고객 잡기 나서

이달까지 골프 용품 최대 70% 할인

봄철 골프 수요를 잡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이 전반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올해 2~3월 골프 상품군의 매출은 1년 전보다 3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 롯데아울렛 골프 상품군 매출도 6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을 못가는 대신 골프로 야외활동이 물리는 점을 감안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6층 특설 매장에서 골프 의류 대전을 진행한다.

참여 브랜드는 보그너, 블랙엔하이트, 엠유스포츠 등이다. 행사 기간 동안 직수입 골프웨어 이월상품을 최초 정가가 대비 30~60% 할인 판매한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오는 31일까지 '위더스골프'에서 골프 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아울렛 남약점은 18일부터 24일까지 1층 특설매장에서 이월 골프 의류를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캘러웨이, 보그너, 아디다스골프 등 다양한 골프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나연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앞두고 합리적인 가격에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며 "지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에서 상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6층 '엠유스포츠' 매장에서 봄철 골프 의류와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귀뚜라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세이프온' 배터리형 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획득

㈜귀뚜라미는 DC 3V 배터리형 일산화탄소 경보기인 '세이프온' (모델명 KGD300B)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경보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을 획득했다. 가정용 220V 전원을 사용하는 콘센트형과 달리,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선이 없다.

일산화탄소에만 반응하는 전기화학식 센서를 적용해 정확도가 높고, 전력 소모가 적어 5년 이상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전원 LED등이 1분 간격으로 점멸해 제품의 작동상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면 경보음과 안내음을 송출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려준다.

'세이프온'은 귀뚜라미 본사 AS센터와 전국 300여 개 귀뚜라미보일러 대리점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가소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불법 미인증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매할 때는 KFI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롯데마트 '펫 클럽' 도입...무료 가입·할인권 제공

롯데마트가 반려동물용품 할인을 주는 회원제 '펫 클럽'을 도입·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펫 클럽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롯데마트GO(고)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설문조사 후 별도의 비용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펫 클럽 회원에게는 반려동물용품 할인권과 구매 금액에 따른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이달까지는 도장 모으기(스탬프 이벤트) 행사

를 진행하며 상품을 살 때마다 할인을 준다.

도장을 2개 모으면 간식 5종 10% 할인권을, 3개는 간식 4종 15%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펫 클럽' 모든 회원에게는 '초이스스 웰밸런스 애견 사료' 10% 할인권이 제공된다.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롯데마트의 반려묘 간식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1.1%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